

C7009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장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한국투자신탁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EO29	고난도펀드 여부	해당하지 않음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변액보험, 개방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16.05.09
운용기간	2023.07.01 ~ 2023.09.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동 펀드는 국내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며,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주식의 가격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합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자산 총액 (A)	2,952	2,641	-10.52
	부채 총액 (B)	42	1	-97.51
	순자산총액 (C=A-B)	2,911	2,640	-9.28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2,280	2,144	-5.99
	기준가격 (E=C/D × 1000)	1,276.27	1,231.61	-3.50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매입)·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과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3분기 국내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7월은 미국 월간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일부 해소된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시사한 점 역시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8월 들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될 때마다 연준의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으로 투자심리가 재차 악화되는 과정이 반복되었고, 안전자산 선호 확대로 장기 국제 금리가 큰 폭 상승했습니다. 9월 FOMC에서 기준 금리를 동결했지만,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점이 성장주 전반의 악재로 작용하며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습니다. 2차전지 업종은 테슬라 판매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전기차 수요 둔화 가능성이 업종 전반의 악재 원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분기 펀드 성과는 통신, IT서비스, 미디어 업종 내 보유 종목의 주가 상승이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화학, IT부품, 인터넷, 엔터 업종 내 보유 종목의 주가하락이 부정적이었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향후 주식시장은 당분간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최대한 길게 긴축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내년 금리 인하 기대 역시 크게 후퇴한 가운데, 높아져 있는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는 경기 지표와 유가 반등으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물가를 감안하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여름의 테마주 유희 현상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안정적인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맞이한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은 기업별 펀더멘털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우량주에 집중하는 흐름 속에 종목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bottom-up 관점에서 낙폭과대 우량주를 선별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 펀드는 소위된 우량 성장주에 집중하는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3.50	1.07	8.16	12.22
(비교지수 대비 성과)	(-0.53)	(0.50)	(-1.26)	(-0.30)
비교지수(벤치마크)	-2.97	0.57	9.42	12.52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	-------	-------	-------	-------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12.22	-17.01	12.86	12.29
(비교지수 대비 성과)	(-0.30)	(0.14)	(5.88)	(6.52)
비교지수(벤치마크)	12.52	-17.15	6.98	5.77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PI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	-	-	150	-	-	-	-	-	2	-4	148
당기	-	-	-	-98	-	-	-	-	-	2	-3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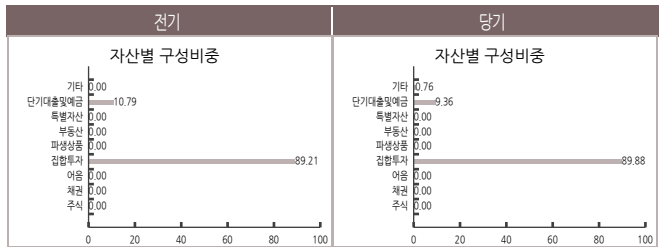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2,374	0	0	0	0	0	247	20	2,641
(1.00)	(0.00)	(0.00)	(0.00)	(89.88)	(0.00)	(0.00)	(0.00)	(0.00)	(0.00)	(9.36)	(0.76)	(100.00)
합계	0	0	0	2,374	0	0	0	0	0	247	20	2,641

※ (): 구성비중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ACE 200	47.56	6		
2	집합투자증권 한투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CF	23.26	7		
3	집합투자증권 TIGER 200	19.06	8		
4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9.36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좌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일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ACE 200	수익증권	1,293	1,256	대한민국	KRW	47.56
한투네비게이터증권투자신탁1호CF	주식형	500	614	대한민국	KRW	23.26
TIGER 200	수익증권	503	504	대한민국	KRW	19.06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6-05-09	247	2.99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운용중인 펀드 현황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74	2,259,294	2119000125
김태현	차장	74	2,259,294	2119000109
윤유라	대리	74	2,259,294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시스템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2020.09.17 ~ 2023.08.25	이대석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	0	-	
판매회사	3	0.11	3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	0	-	
일반사무관리회사	0	-	0	-	
보수합계	4	0.12	3	0.12	
기타비용	0	-	0	-	
매매 증개수수료	단순매매 증개수수료	1	0.03	0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	0	-
	합계	1	0.03	0	-
증권거래세	0	-	0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증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증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669	0.1092	0.5761
당기	0.4668	0.0155	0.4823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증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증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증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6. 유동성 위험 등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 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 현황

가.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 위험요인 등

- 시장위험 및 개별증권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 주식, 채권 등 증권에 투자함으로써 개별증권의 가격 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정치·경제상황 등도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증권이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매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간접 투자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재간접 펀드는 개별적인 운용전략과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주요 위험 관리 방안

가.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 신탁약관 및 법규에 따라 투자한도 및 모든 법적 규제 등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관리 되고 있으며, 내부 투자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투자 전략의 점검, 성과 측정과 위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조치 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 재간접펀드 운용사로부터 주기적으로 운용보고서(factsheet)를 제공 받고 있으며, 이는 운용 성과, 자산구성현황, 투자비용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 재해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리스크 관리, 투자 자산 모니터링 등 회사의 주요 기능이 계속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연 속성계획(BCP)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